

2015

SEPTEMBER

정신 없이 적응해가는 9월

양곤, 30일 이야기



아피들의 9월 일정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2	3 미얀마도착	4 유스 포럼 참가	5 라운아띠 1기 박기쁨 단원만남	6 휴식
7 홀랑따야 라운딩	8 마오글라바 라운딩	9 보족시장 탐방 및 쇼핑	10 쉐베따 라운딩	11 양곤Y 널서리 라운딩	12 휴식	13 휴식
14 수업준비	15 산드라 감사님 미팅회의	16 산드라 컴백, YMCA 라운딩	17 MF(빨레) 라운딩	18 양곤Y 널서리, 미얀마수업	19 산드라 집 방문	20 휴식
21 홀랑따야, KB사무소장님 만남	22 마오글라바	23 친구들과 양곤투어	24 휴식(몸살)	25 공휴일	26 미얀마어 수업	27 MF(마우빈) 라운딩
28 마오글라바 방문	29 게스트하우스 시작	30 홀랑따야+ MF				

제각각 색다른 네 명의 아피들이
두근두근한 마음을 안고
여섯 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그곳은



복적복적한 미얀마의 도시양곤

금철로된 아름다운 파고다와 사람과 차로
뒤엉킨 거리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과 거리거리마다 맛
있는 먹거리를 파는 상인들
그위로 높이 솟아올려지고 있는 건물이
즐비한 그곳 양곤에 도착했다.





목차

우리를 소개합니다

4명의 아피를 소개합니다.

아피와 함께 합니다.

플랑파야, 마오글라바, 쉬베파, Guest House
마이크로 파이낸스, 양곤 YMCA

이곳에 살아갑니다

산드라 감사님 집 방문, KB 사무소장님 만남
대학생들과 양곤 투어

마주 고민합니다.

함께 나눕니다.

과일탐방, 아피를 소개합니다,
감정수업

개인 에세이

두구두구 개봉박두!!

모두를

소개합니다.



이다영 YOUNG

억지 두리안

시리얼

수박

왓또읍(돼지)

과일LOVER

빨래냄새

견과류

스트롱 끌리

배드민턴

요가 선생님

9월의 노래: 수고했어 오늘도

9월의 단어: 일상



이재현 LEE JAIHYUN

손편지

러펫예(미얀마식 밀크티)

맥주

혼자

여행

잠

솔직함

몰래 와이파이 하기

이마 광녀

버클리 음대 실로폰학과

9월의 단어 : 순간

9월의 한마디 : 괜찮아





이건희 KONI

행바라기씨

대두

먹방

맨유

분위기메이커

담배가게 누나

코가 장식

상황극가

로봇

강냉이





김민준 JUN

주몽

블린트

자신을 매우 사랑함

맥주

오지 탐험가

무슬림

이다영'S 배드민턴 코치

축구

감정수업

에피 Lover

9월의 단어: 감정

9월의 감정: 감사





홀랑따야



아띠들이 바라본 홀랑따야

소와 오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집 연못 한구석에서 토끼가 세수를 하는 조용한 마을. 비가 조금만 내려도 길가의 구덩이는 물웅덩이가 되는 시골마을이다. 마을의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나뭇잎으로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구슬치기를 하거나 나무를 타며 놀기도 한다.

마을 사찰에서 가끔씩 기침을 하시는 스님이 법문을 설파하시는 소리가 스피커로 마을에 울려 퍼진다.



건희: 처음에 선생님들께 우리가 뭐를 했으면 좋겠냐고 여쭙봤을 때 별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가 별로 달갑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흘랑따야의 선생님들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듯하다. 수업 방식도 마오플라바에 비교해서는 매우 정적이고 아이들이 수동적이다. 우리가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보시면서 선생님들도 조금은 수업 방식이 바뀌셨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조용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뭐든지 준비해가면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신다.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많이 보여서 정이 간다. 흘랑따야를 생각하면 귀염둥이 쌍둥이 자매의 웃음이 생각난다. 우웬툰이나 뽀누와 함께 하는 활동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웬툰이삼촌♥

민준: 다른 널서리 보단 적극적이진 않지만, 점점 우리를 많이 좋아해주는 느낌을 받는다. 일단 눈치를 보다가 시작하면 같이 활동하려고 신나게 흔들며 흥도 많다. 10월부터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서 더욱더 흘랑따야에 대해 알게 되고 아띠 스킴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앞으로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라고 생각한다.



홀랑따야 마을 풍경



다영: 홀랑따야에 가면 항상 즐겁다. 내 덩치 만한 까만 소와 작은 오리들이 동동 줄지어 걸어 다니고 널서리 앞에선 삼삼오오 모여 있는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내손을 잡고 나무로 달려가면 나도 모르게 정신 없이 아이들과 마을을 누비게 된다. 그러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내 손에 쥐어주면서 '초래' (달다.) 하며 먹어보라 권하고 나무로 만든 인형을 선물로 주고 길가에서 파는 과자 한입을 나누어주는 홀랑따야의 아이들 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 진정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은 그런 마을이다.

재현: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조금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마음을 여는 게 보여서 행복하다.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기분이나 마음을 밖으로 쉽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점점 진심이 느껴진다.



필리핀 리양따야 에서 함께 하는 동반자



우웬토우 삼촌!

마오끌라바



아이들이 바라본 마오끌라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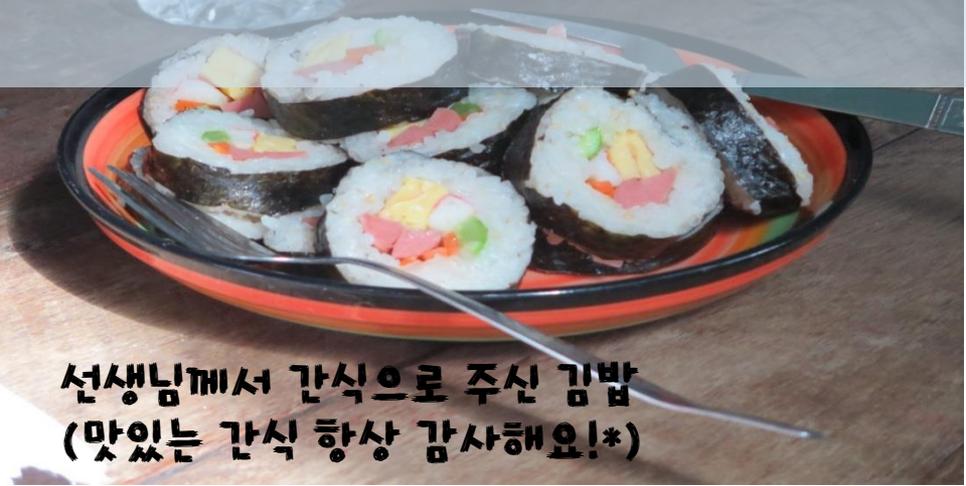
카렌족이 모여 사는 마을. 중앙시장을 지나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목이 터져라 동요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창문 밖으로 얼굴을 항상 내밀고 반겨주는 곳.

아이들처럼 마을 사람들도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먼저 말을 거는 곳.



건희: 처음 마오플라바를 갔을 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들도 노련하게 수업을 잘 진행하시고 아이들도 충분히 행복해 보여서 만약 다른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제외해야 할 사이트다.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감히 그런 생각을 못하겠다.

민준: 가장 먼저 정이 든 널서리이다. 아이들이 모두 사랑 받는 법을 아는 것처럼 사랑스럽고 선생님들도 항상 우리를 신경 써주셔서 감사함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난다. 돌아갈 때까지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집처럼 포근한 곳이다.



마오플라바 널서리

선생님께서 간식으로 주신 김밥 (맛있는 간식 항상 감사해요!*)



다영: 마오킨라바에는 없는 게 없다. 내가 좋아하는 간식과 과일이 가득하다. 조금만 나가도 수박이며 과자, 빵들을 살 수 있다. 널서리 안에서는 변함없이 아띠들의 간식을 챙겨주시며 무엇을 먹고 싶냐고 권하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과 우리에게 따따 하며 밝게 미소짓는 아이들이 있다. 마을 전체적으로 밝고 활기 있다. 아띠들이 지나갈 때 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큰소리로 인사해 주시는 마을 아저씨들, 지나가는 길이 지겹지 않은 시장의 달콤한 냄새들이 가득한 그런 마을이다.

재현: 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럽다. 아이들도 선생님도,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사랑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사랑 받고 싶은 마음도 그대로 표현하는 이곳의 사람들이 너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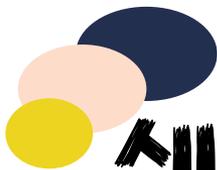
마오글라바 에서 함께 하는 동반자



반누웨이

소클레이

마오글라바 씨야마들과 함께



쉐베따



아띠들이 바라본 쉐베따

넓게 펼쳐진 평야를 지나면 나오는 조용한 시골마을, 150여명의 아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함께 노는 곳. 사찰 안의 학교답게 어린 스님들도 함께 수업을 듣는다. 자비로운 웃음을 지어주시는 스님과 밥 먹을 때면 달려드는 고양이까지 모든 것이 정겨운 곳. 아띠들이 한 반씩 맡아서 한 교시 동안 각자의 수업을 진행한다. 아직 정식수업은 한번 밖에 하지 못했지만 다음 만남이 기다려진다.



민준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관심도 가장 많이
보이며 장난도 많이 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가는 길은 가장 멀고 험하지만
그만큼의 행복과 애정이 있다.
앞으로의 수업이 더욱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우리 받은 열정이 넘치는 아이들이 많아서
더욱 힘이 난다.



재현

정미가 많다.

아이들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

다른 활동들과는 달리, 나 혼자 한 반을 맡기 때문
에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달려오는 '우리 반'
아이들을 보면,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이 아이들을 만나
게 된 것이 참 행운이라는 생각을 한다.

Lesson-11	
What is your name?	이름이 무엇입니까?
My	나의
his	그의
1. What - 고	무엇을
2. is - 이	입니다
3. name - 이름	이름
4. your - 너의	너의
5. his - 그의	그의
6. Uchi - 우리	우리
7. neck - 목	목
8. nose - 코	코

2015.10.01 13:47

다영

쉐베따는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시장도 없고, 찻집도 한 두 개 밖에 없다.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마을을 잘 둘러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나는 사찰 안 아기고양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과 밥을 두둑이 먹은 후 아이들과 학교 안에서 뛰어 노는 시간이 즐겁다. 점심시간이 되면 소풍 온 듯 엄마들이 학교 밖에서 돛자리를 깔고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정겨운 모습도 좋다. 처음 1학년 아이들을 맡아 수업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에게 이름을 묻자 내 발음이 이상했는지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간신히 소통이 되었지만, 모두 수줍어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름을 대답했다. 시작부터 어쩔줄몰랐다. 그러나 내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니, 그제야 미소지었다. 강아지를 그리면 귀이 라고 외치는 아이들, 고양이를 그리면 짜옹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 물고기를 그리면 응아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 언어가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그림 하나로 우리가 같이 웃고 함께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을 신기했다. 답답하게 스스로 질문만 던지던 내게 우리가 서로 통할 수 있다는 힌트를 알려준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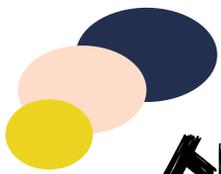


2015.10.01 13:46

견희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게 행운인 것 같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따라주는 게 고맙다. 그래서 더 수업 준비도 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곳인 것 같다. 나의 교육지침은 “생각을 열고 창의력을 기르는 수업을 하자.” 첫 수업에 시도 해 본 ‘20년 후 내 모습 그리기’ 수업은 나름 성공적이었고 아이들의 이쁨도 잘 알게 되었다. 수업시간이 너무 짧고 수업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수업 뿐이라는 것이 아쉽지만, 앞으로도 아이들과 내가 자유히 좋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수업을 하고 싶다. 다음 수업이 기다려진다.





쉐비바다에서 함께 하는 동반자



쉐비바다 스님과 함께!!



쉐비바다에 사는 고양이



우띠에



Guest House

아띠들의 Guesthouse 스텝 일정표

Korea Timetable

Date	Reception	Third Floor	Six Floor
29-9-15	Ms.Lee Dayoung	Mr.Kim Min Jun	Mr.Lee Gunhee Ms.Lee Jaihyun
6-10-15	Ms.Lee Jaihyun	Mr.Lee Gunhee	Ms.Lee Dayoung Mr.Kim Minjun
13-10-15	Mr.Kim Minjun	Ms.Lee Dayoung	Mr.Lee Gunhee Ms.Lee Jaihyun
20-10-15	Mr.Lee Gunhee	Ms.Lee Jaihyun	Mr.Kim Minjun Ms.Lee Dayoung
27-10-15	Ms.Lee Dayoung	Mr.Kim Min Jun	Mr.Lee Gunhee Ms.Lee Jaihyun



양곤 ymca와 스텝들을 알아가요!

양곤 도심에서 살 수밖에 없는 미얀마 라온아띠의 현실이지만, 이곳에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YMCA의 스텝들을 알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활동. 이 활동으로 인해 우린 더 스텝들과 가까워지고 더 이상 이방인 또는 손님이 아닌 이곳의 사람들이 되었다. 14기가 가장 뿌듯해 하는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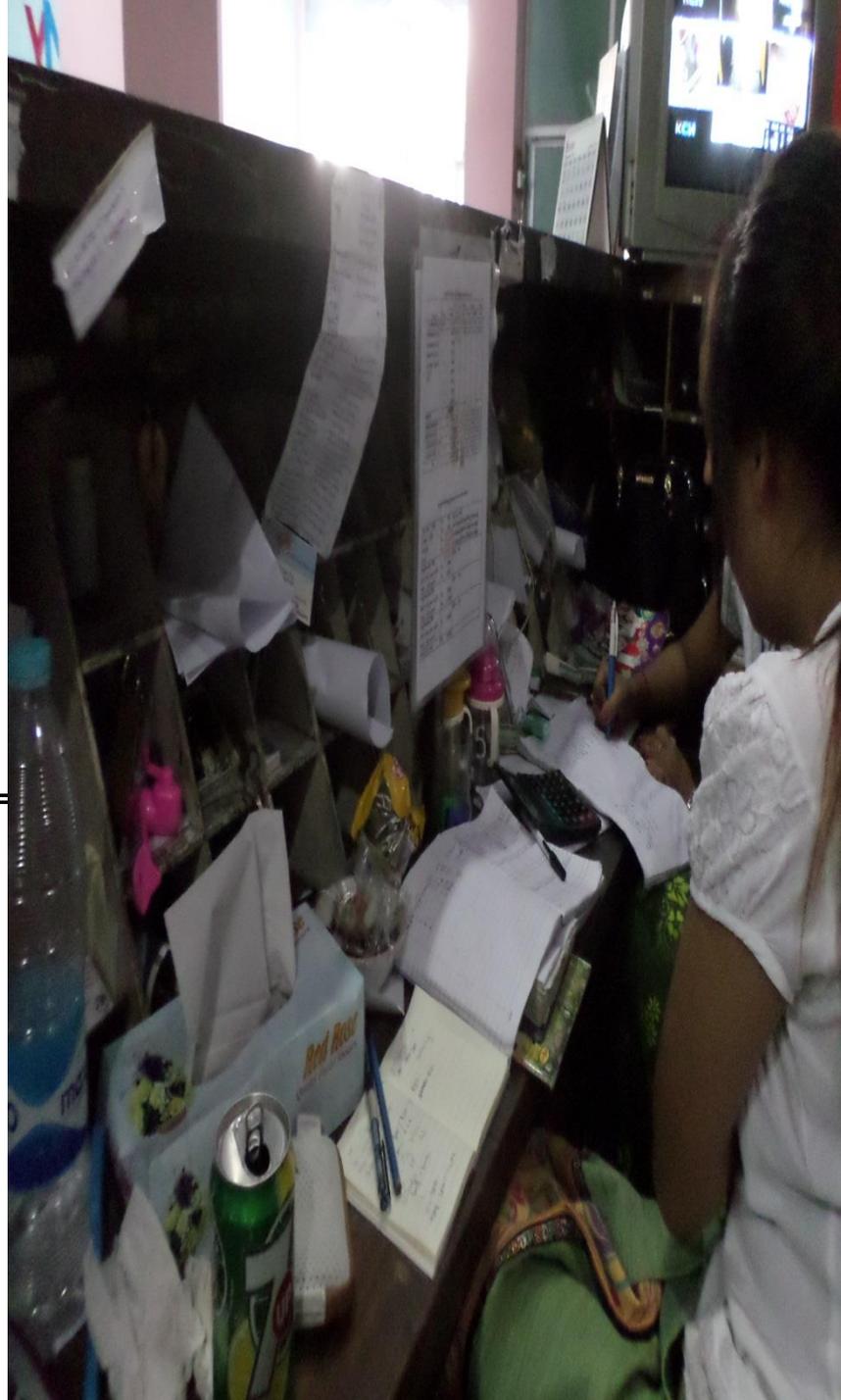


건희: 너무 행복하다.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을 알고 사람을 만나는 게 목적이었던 처음의 바람대로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양곤 YMCA라는 마을을 발견했다. 일을 하고 있으면 모든 YMCA 스태프들이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말을 걸어주신다. 이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가까워지지 못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특별하다. 특히 흘랑따야 널서리 바로 옆에 사시는 윈니 아주머니의 집을 발견했다는 것, 맨발로 쫓아 나오신 윈니 아주머니와 함께 집에서 차를 나눈 것, 지금까지 서로의 얼굴을 몰랐던 뽀누와 윈니 아주머니의 연결고리가 우리라는 것들이 모두 뿌듯하고 행복하다.

민준: 양곤 YMCA가 게스트 하우스라는 특징에서 찾아낸 우리의 첫 걸음. 비록 게스트들을 더 많이 불러들이거나 참신한 홍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스태프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활동하며 더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느껴진다.

다영: 우리가 그동안 생활하던 양곤y안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일을 직접해보니 멀리서 보기만 했던 일들이 피부로 와 닿았고 스텝들과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디에서 누가 어떤일을 하는지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다. 그중에 내 또래의 많은 친구들이 y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저 스치고 지나갔던 리셉션앞 에서도 이젠 서로의 안부를 묻고 , 늦게 까지 카운터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힘내 라는 한마디를 건넨다. 서로 장난도 치고 가족 사진도 보여주며 스텝들과 친구로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활동이었다.

재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다른 YMCA 스텝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 이 날 하루, 일하는 시간만큼은, 스텝들이 우리를 다른 스텝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게 좋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사랑 받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함께 게스트하우스 침대를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말로 설명 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 되는 것 같다. 이 시간이 좋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 마이크로파이낸스 첫번째 마을! 빨래



1시간 반~2시간 걸쳐 버스를 타고 마을 빨래에 도착했다. 아띠들이 처음 맞이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모습은 마을을 이루고 있는 가정의 여성을 중심으로 그룹을 지어 운영되고 있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에는 널서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마을 빨래 photo z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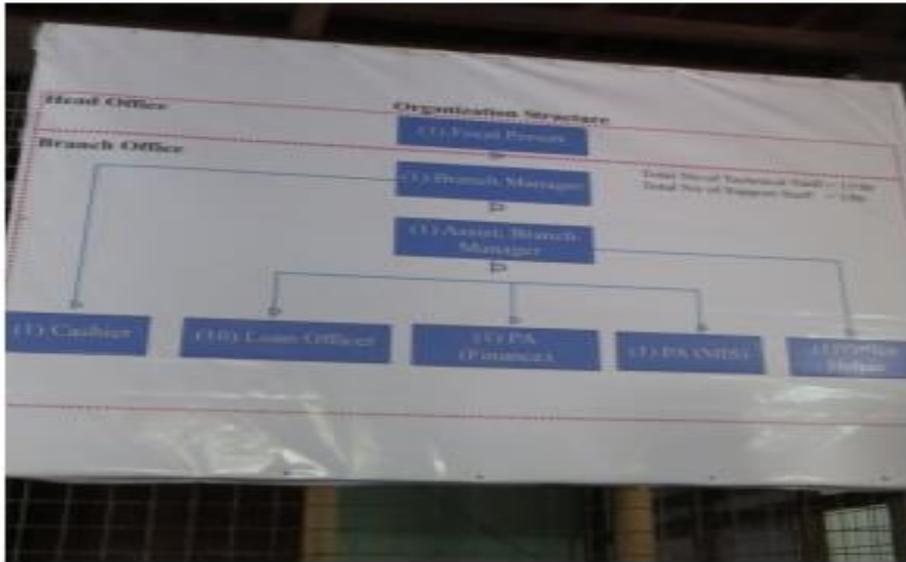
Loan	Old-Loan	New-Loan	Capital	Interest	Saving (1)Week		
			2000/-	148/-	102/-	2250/-	90/-
1 st Loan	25000/-	50000/-	50000/-	3700/-	2550/-	56250/-	136/-
(6)Month			3000/-	222/-	178/-	3400/-	
2 nd Loan	37500/-	75000/-	75000/-	5550/-	4450/-	85000/-	
(6)Month			3900/-	293/-	207/-	4400/-	176/-
3 rd Loan	52500/-	97500/-	97500/-	7325/-	5175/-	110000/-	
(6)Month			4500/-	344/-	256/-	5100/-	204/-
4 th Loan	75000/-	112500/-	112500/-	8600/-	6400/-	127500/-	
(6)Month			5400/-	404/-	296/-	6100/-	244/-
5 th Loan	97500/-	135000/-	135000/-	10100/-	7400/-	152500/-	
(6)Month			6000/-	455/-	345/-	6800/-	272/-
6 th Loan	112500/-	150000/-	150000/-	11375/-	8625/-	170000/-	
(6)Month			7200/-	546/-	404/-	8150/-	326/-
7 th Loan	135000/-	180000/-	180000/-	13650/-	10100/-	203750/-	
(6)Month			9000/-	677/-	473/-	10150/-	406/-
8 th Loan	150000/-	225000/-	225000/-	16925/-	11825/-	253750/-	
(6)Month			12000/-	910/-	640/-	13550/-	542/-
9 th Loan	180000/-	300000/-	300000/-	22750/-	16000/-	338750/-	
(6)Month			12800/-	967/-	683/-	14450/-	578/-
10 th Loan	225000/-	320000/-	320000/-	24175/-	17075/-	358550/-	
(6)Month			14000/-	1058/-	742/-	15800/-	632/-
11 th Loan	300000/-	350000/-	350000/-	26450/-	18550/-	395000/-	
(6)Month							

마이크로 파이낸스

마이크로파이낸스 두번째 마을! 마우빈



약 3시간에 걸쳐 들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마을 마우빈은 우리가 생각했던 마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조금만 들어가면 수상가옥들을 볼 수 있고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마우빈, 그 자연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accomplishment as at 31.7.2015

အမျိုးအမည်	ရက်စွဲ	ပမာဏ
စုစုပေါင်း		55
အသစ်		150
ပိတ်ဆို့		9,802
စုစုပေါင်း		17,054
အသစ်		158,223
ပိတ်ဆို့		957,873
စုစုပေါင်း		608,851
အသစ်		118,726
ပိတ်ဆို့		38,186
စုစုပေါင်း		1,009

မာ့အူဘီ၏ မိုက်ခရို ဖိုက်နစ် ဂွေကူ့ဆီ့ဆီ့
ကီ့ဒါ!

마우빈 그 마을은..

마우빈이 라는 작은 마을을 갔다.

차로 3시간을 달려 갈 수 있는 곳이었다.

한삼을 들어가면 논이 보이고 돼지와 도와 사람들, 그리고 낚시를 하는 아이들이 보인다.

마을에는 시장이 없어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마을사람들 스스로 거리를 만들고 집을 짓고 잔칫날이 되면 돼지를 잡아 먹는다.

돈님이 오면 길을 지나다니는 닭을 잡아 끓여다 주고, 품종하진 않아도 달콤한 차 한잔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을이다. 아이들이 수영을 즐기며 기쁨 강 근처에서 구슬시기를 한다.

기쁨이 먹어해졌다. 다시 묻지 모르는 이곳에 다시 묻 거냐고 물어보는 아줌마에게 내기 감히 배안뚜아메(똥뉘)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때 아주 많은 생각을 했던 거 같다.

BY. 다영 :)

마을 마우빈 photo zone



아피들이 느낀 마이크로파이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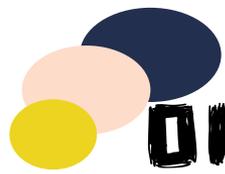
건희: 우리가 마을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쉽게 알지 못하는 민감한 문제인 경제적인 사황을 알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마이크로 파이낸스, 빨레에서의 첫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은 아직까지 가슴 속에 남아있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 마을과 사람들이 좋았다. 현재 산드라의 제안으로 진행하고 있는 풀랑 파야에서 널서리 활동이 끝난 후에 약 3시간동안 진행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우리가 조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다. 산드라와 다시 회의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

재현: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체가 궁금했다기보다는, 그냥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사람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었다. 아직까지는 그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다. 산드라 간사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활동을 조정하고 싶다.

아피들이 느낀 마이크로파이낸스

민준: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그라민 뱅크에 대해서 알고 나서 관심이 있었는데 미얀마에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장 기대했던 활동이었다. 와서 보니 양곤 Y에서 추진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생각보다 규모가 큰 분야였다. 다만 우리가 외국인이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한정 되어있고 아직 우리가 원하는 부분과 양곤Y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 조금씩 조정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좀 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다영: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알아가기 보다는 그것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될 수만 있다면 마을사람들이 마이크 파이낸스를 통해 얻게 된 튀김가게나, 얼음 장사나, 자전거 택시 운행 같은 일들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해보고 싶었다. 언어보다는 몸으로 부딪치며 지내고 싶었다.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싶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도 좋다. 그냥 마을에 머물며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마을 보고 싶다. 그래서 더 오랜 기간 그들과 옆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함께 하는 동반자



디자인

메리징

양곤 YMCA 널서리



양곤 ymca 2층, 10시가 되면 양곤 널서리는 활기찬 에띠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다양한 율동과 노래로 시작된다. '파에띠이', '호키포키', 그 밖의 여러 미얀마어 노래들을 배울 수 있는 아띠들의 교육장이자 다양한 활동을 먼저 아이들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곳이다. 아띠들은 널서리 이후엔 이곳에서 미얀마어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은 당연 에띠 선생님이이다.



재현: 참 많이 웃게 된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다른 놀서리와는 달리, ymca 놀서리는 아이들도 적고 공간도 쾌적하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른 놀서리 아이들이 많이 생각나기는 한다. 하지만 아이들 자체는 너무 밝고, 예뻐서 이 곳을 방문하는 시간이 좋다.



다영: YMCA 스태프들의 아이들이 많은 이곳은 더 정이 간다. 우리들의 미얀마 선생님인 에띠 선생님은 언제나 재미있는 율동과 노래로 아이들과 함께 한다. 선생님들도 모두 적극적이고 교구가 많은 이곳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공간이 된다. 아이들의 손에 이끌려 여러 교구를 만지고 있다 보면, 다른 놀서리의 아이들이 떠오른 한다. 환경이 라는 것이, 혹은 교육이라는 것의 영향에 대해 .. 계속 비교하게 된다. 하지만 결국 마오끌라바도 흘랑따야도 그곳의 아이들만의 특별한 점들이 있는데 말이다.

건희: 양곤 널서리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의 널서리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실제로 우리는 도움이 많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양곤 널서리는 우리에게 널서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주었다. 한 달 동안 아이들과 즐겁게 부른 미얀마어 동요를 이곳에서 띠띠선생님에게 배웠고, 에띠선생님과 미얀마어 수업에서는 수업 때 또는 일상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미얀마어 표현들을 습득했다.

금요일에 이곳에 가면 일주일 동안 다녀왔던 타 지역의 널서리들과 이곳을 자연스럽게 비교 하게 된다.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의 영향력과 그것을 상쇄시켜줄 교육의 중요성 등 여러 가지 생각해 주는 고마운 널서리이다.

민준: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른 널서리와 비교해서 월등히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아이들과 좀 더 실험적인 활동들이 가능한 곳이다. 그리고 다른 널서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아이들 수가 적어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이름도 영어 이름이 많아 외우기가 편하다. 그리고 여기의 원장선생님이자 우리의 미얀마어 선생님 에띠는 너무 좋다. 칠판 에띠 써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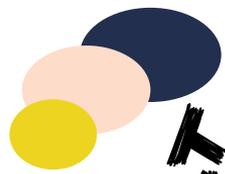
STELLA CAMERON
Glass Houses

၂၅ ဘယ်လိုလုပ်လိမ့်
အထူးစာအုပ်



이곳에
살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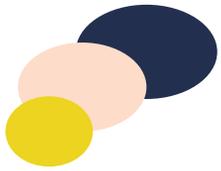




산드라 간사님 집 방문 둘째 아들 생일



미얀마에 오자마자 반겨주셨던 산드라 간사님, 가장 우리와 많이 만나게 되는 분인 만큼 조심스러웠지만, 엄마 미소와 포근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 그리곤 곧바로 둘째 아들의 생일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다! 이곳은 산드라 가족들과 아들의 친구들이 모두 모여 북적거리며 우리나라의 명절을 생각하게 만드는 집이었다. 여기 안 나오신 산드라의 어머니(우리에게겐 할머니)는 아주 쾌활하시고 젊게 사시는 분이였다. 가서 꼭 홈스테이하고 싶은 곳!!



KB BANK 사무소장님과 만남



한달 동안의 영어 소통으로 한국어에 목마르던 아띠들에게 소장님과의 대화는 단비와 같았다. 가자마자 우리를 반겨준 비서, 띠자 누나는 한국인 못지 않게 한국말을 잘하는 미얀마사람이었다. 새로운 충격에 놀란 우리는 한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다는 말에 더욱더 놀랐다. 사무소장님은 한국음식을 그리워하던 우리에게 삼겹살과 김치찌개를 대접해주셨고, 그날 아띠들은 모두 맛에 감탄했다. 남은 음식을 전부 포장해주시는 센스까지! 소장님 감사합니다~

미얀마 친구들과 함께 양곤투어

양곤에 도착하자마자 우연치 않게 양곤 YMCA에서 진행한 YOUTH FORUM에 참석하여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중 같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한 끝에, 방학인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양곤 투어를 하게 되었다. 쉐다곤 파고다, 정선 스퀘어, 양곤 대학교, 인야 호수, 세꼬랑 등 많은 곳을 같이 갈 수 있었다. 너무 좋았지만 너무 빡빡한 일정이었던 나머지 다음날 모두가 몸살과 감기로 침대와 한 몸이 되었다.



마주
고민합니다.



13기는 양곤에서의 활동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강조하였다. 13기는 널서리 활동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같은 현상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출국 전부터 함께 고민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지 않고서는 설βολ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처음우리의 스케줄!

월요일	흘랑따야
화요일	먀오플라바
수요일	휴식
목요일	쉐삐따
금요일	양곤 널서리
토요일	미얀마어 수업
일요일	휴식

산드라 감사님과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감사님은 우선 13기와 같은 스케줄을 한 주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줄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고 제안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의 활동에서 우리는 13기의 넬서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게 되었고 그 전보다 더 깊게 스케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일단 우리는 우리가 5개월간의 현지활동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나 목표는 무엇인지 부터 생각해봤다. 우리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미얀마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고민

미얀마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언어가 우선이다.

넬서리 활동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더 진짜 미얀마를 만나고 싶다.

양곤에서 머무르고 하루씩 사이트를 방문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기 어렵다



간사님에게 제안

미얀마어 수업 추가

마이크로파이낸스, 홍수피해 구호 활동

YMCA 하우스키핑 및 리셉션 데스크활동, 홈스테이 기간 연장

#1. 우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미얀마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었다.

사이트의 주민들이나 아이들은 영어에 서투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얀마어를 배우는 것이 급선무였다. 우리는 스태프들에게 틈 날때마다 미얀마 표현들을 물어봤고 일주일에 한번이었던 에띠와의 미얀마어 수업을 한 시간 더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드라는 매우 기특해하며 바로 티쳐 에띠를 불러 우리의 수업 스케줄을 조정해주었다.



#2. 우리는 미얀마의 더 깊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만나고 싶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이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경제 상황을 쉽게 알게 해 줄 통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활동을 제안했다. 바로 그 주에 뵘발레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다음주부터는 흘랑따야에서 오전에 넬서리 활동이 끝난 후에 오후에 3시간 정도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홍수피해구호활동 또한 간헐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3. 미얀마는 아직 외국인이 주민들의 집에 거주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YMCA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최대한 이용해 보고자, YMCA에서 사람을 만나고자 우리는 YMCA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산드라 감사님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우리는 방을 청소하는 하우스 키팅 일과 로비에서 리셉션 데스크 일을 하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던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하게 되었고 수많은 인연들을 만들 수 있었다.



월요일	마오펠라바
화요일	하우스키핑 및 리셉션
수요일	흘랑따야 널서리 / 마이크로 파이낸스
목요일	쉐삐따
금요일	양곤 널서리 / 미얀마어 수업
토요일	미얀마어 수업
일요일	휴식

두 번의 조정을 거쳐 10월의 스케줄은 왼쪽과 같이 정해졌다.

비록 우리는 휴일을 잃었지만 그 전과 다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 몸은 피곤하지만 기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널서리 활동의 한계점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또한 현재 흘랑따야 에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한 주민들과의 만남은 시간적으로나 방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원했던 방식과는 거리가 멀고 흘랑따야 에서는 오후에 아띠스쿨도 진행하려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11월부터는 Pale 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활동을 하루 종일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앞으로도 간사님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변화 큰 모색할 것이다.



아이의
미래입니다.



충천완료



방전직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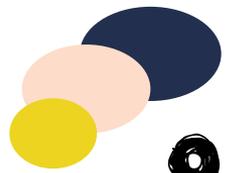
**거니
아이돌봄
로봇**



작동중



방전



양곤 시장 과일 탐방 by 다영



망고스틴 ★★★★★

껍질을 까자마자 동그랗고 흰 속살이 나타나는 이 신비스런 과일! 겉보기엔 악마의 열매 처럼 생겼어도 맛은 정말 달콤하고 과즙이 많다! 다만 너무 양이 적다는 것이 단점! 한입 먹으면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쉽다.

10개에 천짜에 살 수있다 (완전싸요호!)



잭푸르트 ★★☆☆☆

다 먹으면 조약돌 만한 씨가 나오는 이 과일은 강한 감맛이난다. 다른 과일 보다 달지 않다는 점! 하지만 중독성 있는 맛이 특징 보족시장 근처에서 1350짜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자몽 ★★★★★

한국의 자몽보다는 크기가 작다. 과일 껍질을 벗기면 자몽향이 가득 퍼진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 풍부한 과즙과 자몽의 특유 쓴맛보다 단맛이 더 진하게 난다는 것이 장점이다.



똥땡이 바나나 ★★★★★

이제까지 본 바나나는 잊어라! 바나나의 크기가 2배! 양도 2배! 일반 바나나에 비해 몸에 좋다는 것이 강한 장점. 덩으로 1000원에 한 다발을 구매할수있다는 점도 플러스다. 하지만 바나나의 강한 단맛을 상상했던 사람이 라면 약간의 실망을 할 수도 있는 맛. 담백한 바나나의 맛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 라면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쿠스터드 애플 ★★★★★

플랑파야에서 아이들이 나눠주어 처음으로 먹어본 과일이다. 울퉁불퉁한 모양을 보고 겁에 질렸다면 일단 먹어보아라! 입안에 넣을 때 설탕처럼 아삭아삭 씹히는 과즙과 부드러운 맛이 강하다. 다만 씨가 너무 많아서 먹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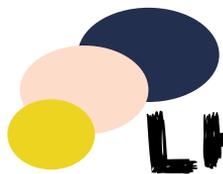


파파야 ★★★★★

커다란 주황과일을 쪼개니 속도 주황색인 신기한 과일. 마치 메론 같다. 물이 굉장히 많다. 냄새는 약간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계속 먹다보면 끝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파파야의 중독적인 매력이다. 단맛은 그리 강하지 않다. 파파야는 카페 팔빙수에 들어가는 국민 과일이라는 점! 한번 파파야의 맛에 빠져봅시다 ㅋㅋ



다음엔 더 신기하고 맛있는 과일과 함께 만나요!



나의 아미를 소개합니다. by 건희 koni

원니 아줌마를 소개합니다.

- 카렌족. 현재 흘랑따야 널서리 바로 옆의 집에서 남편인 조셉, 딸 로즈마리와 9살 아들 4가족이 살고 있다.
- 양곤 널서리 선생님인 로즈마리의 어머니이자 YMCA 스태프인 묘묘쭈와 뚜투의 이모.
-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커피를 마시면 안되지만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끊지 못하신다. 조금만 마시시라고 잔소리를 할 수 밖에 없다.
- 93년부터 95년까지 YMCA에서 일하다가 싱가포르에서 2년동안 일하셨다. 빙수가게를 하는 가족의 집에서 빙수재료도 끓여서 만드시고 집안일도 하셨다. 월급은 약 2만 1천원, 현재 물가로 약 30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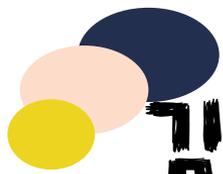


- 싱가포르에서 돌아와서는 닭을 길러서 팔았다
- 2007년 다시 YMCA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약 9년간 일하고 있다. 흘랑따야 집에서 YMCA까지 거리는 멀지 않지만 교통체증 때문에 9시에 출근하기 위해서는 6시에 일어나서 6시 45분에 집에서 나서야 한다. 교통체증은 2013년 자동차 수입 제한이 풀리면서 매우 심해졌다고 한다.
- 10월부터는 수요일, 목요일이 쉬는 날이어서 아띠들이 수요일에 흘랑따야를 가면 집에서 맞아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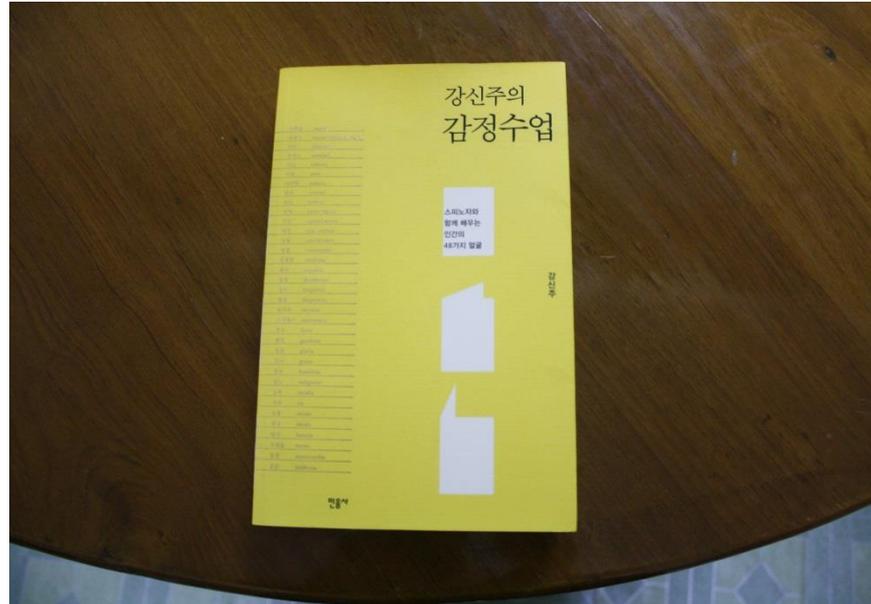
원니는 양곤 YMCA 6층에서 일한다. 9월 YMCA에서 지내며 오며 가며 지나쳤지만 내가 원니와 정식으로 만난 건 하우스 키핑 일을 시작하는 날이었다. 한국인이나 손님으로 안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원니는 자연스럽게 일을 시키시며 나를 편하게 해주셨고 그만큼 나는 더 열심히 나서서 일을 했다. 꼼꼼한 원니의 지도에 맞춰 약 15개 정도의 방을 청소하고 나서 원니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날 플라따야 널서리 활동을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다. 우리 4명과 뽀누, 우웬툰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인상 깊었던 건 플라따야에 이 전에도 몇 번이나 왔었을 뽀누를 처음 본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해준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다. 앞으로도 많은 추억을 나누고 싶은 나의 아띠이다.

“내가 그₂들의 아띠이고, 그₂들이 나의 아띠이다.”



김민준의 감정수업. By 주몽



우리는 물론 자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얀마에 왔지만 모든 시간을 자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온 이유 중 팀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읽은 책들 중 강신주의 감정수업이란 책을 시작으로 우리 팀 아피들과 감정수업이라는 시간을 나눠 보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먼저 읽고 기억에 남는 감정 중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가 자긍심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성취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 나는 이 책의 자긍심이라는 감정 부분을 읽고 미얀마에 와서 많은 자긍심을 느꼈다고 생각해. 그 예들 중에 하나는 미얀마 사람들이 우리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의 눈빛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나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게 한다는 면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또, 한편으론 그런 의미에서 자긍심은 일종의 성취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성취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영: 내가 생각하는 성취감이란 감정은 오롯이 모든 것을 이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노력과 결과 그 모두 때문에 행복 그 이상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이: 성취감이란 것은 자신이 노력한 끝에 얻어내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감은 자신이 만족할 만큼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성취감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 너는 성취감을 그럼 느껴본 적이 있어?

제이: 저는 거의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만족할 만큼의 노력을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저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한 경향이 있어서 저에게 성취감은 어려운 감정이에요.

거니: 저도 재현이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성취감이란 것 자체는 평소에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제 굳어진 초콜 불에 녹여서 심지를 빼낸 것도 일종의 성취감이라고 생각해요.

준: 응, 나도 성취감은 기쁨이라는 감정 안에 포함되는 것 같아. 족구를 하다 골을 넣어도 느낄 수 있고 내가 예상한 대로 풀러가는 것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서 느끼기 힘든 감정은 아닌 것 같아.

(중략)

그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저녁에 맥주를 마시며 감정수업을 한다.

다음 시간에 계속..

아빠들의 양곤 30일 이야기



9월의 재현



‘9월의 라온아띠’, ‘양곤에서의 첫 한 달’을 어떻게 정리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고민했다.

9월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곳들을 방문했고, 많은 것들을 했다.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것들을 느꼈다.

너무 많아서 일까? 글로 표현 할 수가 없다.

아직은, 솔직히 아무 것도 모르겠다. 양곤도, 우리 팀도, 라온아띠도, 미얀마 사람들도.

지금은 그냥, 정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살고 있다. 만나고, 알아가고, 또 견디고 있다.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느리게 느리게 피에 피에



9월 한달, 길을 지나갈 때 마다 헬로우 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택시를 잡겠느냐는 관광객 호객행위를 피해, 나는 멀리 멀리 내 일상을 찾아 도망 다녔다. 다르게 보는 시선이 싫었다. 내가 외국인으로 비춰지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임에도 때로는 부정하고 싶었다. 가끔 평범한 미얀마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행동하는 지 버스를 타며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다. 그만큼 나는 이곳에서 빨리 내가 생각하는 일상을 찾아가고 싶었다.

갈수록 '일상' 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일상'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마하반둘라 거리에서 수박 하나를 산 것도 일상이고, 민준오빠와 ymca 층에서 배드민턴 치는 것도 일상이고, 우띠에 아저씨와 수다 떠는 것도 일상인데 말이다. 이모든 것이 일상이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일상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혔다. 일상은 한편으로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가 어느새 신호등 없는 차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는 것도, 길을 오가는 사람만한 개를 보아도 놀라지 않는 것도, 아침에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뺨뺨을 넣어놓는 것도, 나도 모르게 뭉들어가는 것이다.

일상은 굳이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냥 살아가는 것.

일상은 지금 이순간이다.

#이곳, 여기, 고스란히,

맨발로 거침없이 뛰어 다니 아이들,
신발 하나로도 놀이가 되고 게임이 된다.
넘어져도 쉽게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다시 뛰어 논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뜨거운 도시락을 대신
들어주는 아주머니의 마음이 좋다.
버스차창에 흔들거리는 꽃 장식이 좋다.

길거리 개들에게 밥을 한 가득 놓아주는 소소한 여유와
새들의 모이로 벼를 기둥에 달아주는 마음이 예뻐다.

길을 찾고자 할 때,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
집을 방문하면 두둑한 간식을 챙겨주시는 마을사람들의 인심이,
길을 지나가다 누군가 밉글라바 하며 웃어주는 미소가
예뻐다.



#좋아한다는 것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 나는 것,

걱정하는 것,

지켜보는 것.

아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한 번 더 묻어주는 것.

기억해주는 것.

그 모든 생각들이 치중되어버린다는 사실.

좋아하니깐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아픈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다가 원망하다 해도 함께 웃어주면 모든 게 얼음 녹듯이 녹아
버리는 것. 괜찮은 것 같다가도 어느새 눈물이 차오르는 것.

그것은 아마 좋아하기 때문이다.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내가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다영 :D

민준



모든 것이 새롭고 즐겁다.

생각했던 것보다 덥고 습한 곳이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선선해지는 날씨처럼 점점 모든 것이 좋아진다. 같이 지내는 아띠들이 좋고,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스태프들이 좋고, 같이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좋다. 어딜 가나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고, 도와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다. 다만, 지난 두 기수와는 다른 우리만의 좀 더 새롭고 다른 무엇인가를 하면 좋겠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산드라 감사님과 대화할 통해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점만이 유일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지난 한달 동안이 적응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며, 넘치게 받은 사랑과 감사를 조금씩 되돌려주고 싶다.

건희

바빠서, 바빠야 해서, 바쁜 척 해서
내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내 어린들을 돌아다닌다.



솔직하게 말하면 미얀마의 습한 공기가 싫었다.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도, 뜨거운 햇살도 힘들었다. 미얀마 음식의 향도,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없는 것도, 오래된 건물들의 더러운 외벽도, 덥고 좁은 버스도 싫었다.

한 달이 지나고, 어느새 이제 이곳의 모든 게 나의 일상이 되었다. 갑자기 내리는 비 때문에 급하게 피는 우산 속에 짜증 대신 웃음이 있고, 반도 안 먹던 도시락 밥을 이제 반찬까지 비운다. 주말 밤, 형과 함께 방에 누워서 생각이 나지 않는 영화 제목을 30분동안 끙끙대며 생각하다가 결국 떠올랐을 때의 그 쾌감도 너무 반갑다. 이곳이 좋다.

바빠서, 바빠야 해서, 바쁜 척 해서 내 일상에서 잃어버렸던 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내 머릿속을 돌아다닌다.

5개월간의 현지활동이 끝나고 나서 어느 누구와도 이 경험을 완전히 공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나 자신은 지금 이 감정과 경험들을 기억하고 지금의 나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 하고 사람에게 충실하겠다. 미래의 나는 결국 순간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조각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한국에서 오기 전, 내가 이곳에서 관계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걱정했다. 관계에 대해서 걱정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곳에 와서 내가 감히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 달 동안 충분히 사랑 받았으니 나머지 시간 동안 그 사랑에 보답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활동해야겠다.

행복하다.....행복하다라는 말이 생각보다 하기 어려운 말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우 따냐, 우 웬툃, 우 띠에, 마 산드라, 에띠, 노 윈니, 조셉, 누누투웨, 소클레이, 뽀뽀누웨이, 게그리, 디자인, 메리 진, 에이프킬, 케띠, 미뚜, 묘묘쭈, 뚜뚜, 엘레스, 데니스, 레꼬, 아짚, 프레드, 띠자, 브라운, 띠띠, 모모, 로즈마리, 닝웨이, 보미, 추이, 띠띠, 가웅킨, 투투, 존보이, 오까마, 시마, 싯두, 스티븐, 호띠, 라웅라웅, 그리고 쉐베띠 39명의 우리반 아이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사람들까지.



10월에는
마나오!